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허윤*

차례

1.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이주 서사의 변천
2. 여성의 '부덕'과 아시아적 보편성
3. 성스러운 모성과 한국문학의 욕망
4.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국문초록〉

본고는 이주가 보편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이주-장편소설을 통해 한국 장편소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등장한 여성-이주-장편소설에서는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비체화된 여성이 신성을 획득한다는 플롯이 자주 등장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황석영의 『바리데기』(2007)이다.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원용한 소설 『바리데기』는 탈북여성인 바리가 중국을 거쳐 영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다. 여성주체는 이주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그러나 이때 주인공인 바리는 선량한 남성 주체들의 도움으로 성매매의 위기로부터 구원되고, 여성의 고통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와 같은 환상적인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때 여성주체를 향한 폭력은 신자유주의 하 포스트 식민 체제의 고통을 상징한다. 가족과 헤어져 홀로 국경을 넘는 소녀를 통해 신체국주의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신자유주의의 거부장적 질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 한신대학교 강사

않는다. 바리는 파키스탄계 이주민인 알리와 결혼하여 순결한 가족을 건설한다. 이주 과정의 폭력에서 구원된 바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딸의 죽음이다.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해원하는 영매 바리는 아시아적 서사의 모델이 된다. 하지만 이 모델은 고통과 고난을 여성화하는 방식이라는 윤리적 한계를 내포한다.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경계를 넘는 모험을 통해 새로운 신성성을 만들어내는 여성-이주-장편서사는 동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세계문학으로 자리매김한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길항을 통해 한국 장편소설이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자 되기와 그 재현의 문제를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 서사를 여성의 희생과 해원, 성화로 공식화하지 않고, 성스러움을 노동과 분리하지 않는 윤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핵심어 : 『바리데기』,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부덕(婦德), 장편소설

1.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이주-노동 서사의 변천

근대 여성들에게 이주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통행 허가 시간이 정해져 있던 구한 말 여성들에게는 집 밖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체험이었으며, 집을 떠나 학교로, 공장으로 떠남으로써 존재론적 전환을 이루기도 했다. “생을 닦으러 떠난 너”(신경숙, 『외딴방』)들은 고향을 떠나 여공, 식모, 타이피스트로 거듭난다. 이주는 여성이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주체가 될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민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이성과 비이성 등을 나누는 여러 경계를 탈주하면서 의미의 장을 교란하고 그로 인해 로고스의 질서를 탈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목민이나 망명객의 탈영토성에 대한 신화화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불가능해진다.

신자유주의는 대규모의 이주를 배경으로 한다.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내전의 발발과 같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토를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의 경계를 해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규모 이주에서 유목의 서사는 “부도덕한” 것이 된다.¹⁾ 영주권이나 체류권,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영토화의 가능성은 낭만적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이주의 경우, 성별 분업의 전 지구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된다.²⁾ 대규모 이주 서사 속에서 저임금 공장노동과 청소, 가사, 양육 등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생존회로’³⁾ 속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와 이주의 중첩이 여성주체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변동은 한국문학 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 장편소설은 일련의 여성 하위주체들을 소환한다. 결혼이주나 노동이주 여성을 다룬 소설들은 1990년대 이후 일련의 균을 형성한 유일한 여성서사로, 민족과 젠더,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다.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2003)과 『바리데기』(2007),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05), 강영숙의 『리나』(2006),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2007), 정도상의 『찹레꽃』(2008), 김유경의 『청춘연가』(2012) 등은 국경을 넘고, 사이-공간에서 생존하는 이

1)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2006 겨울, 418~434쪽.

2)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2권 4호, 2006, 125~155쪽.

3) 사스키아 사센은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1998)에서 이를 ‘생존회로’로 명명한다. 세계도시에는 두 가지 회로가 있는데, 코스모폴리탄들이 지배하는 상위회로와 3세계 이주노동자들의 하위회로가 그것이다. 사센은 지구화에 대한 분석이 상위회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 대해 비판하고, 상위회로와 하위회로의 증충적 전개를 통해 지구화의 분절적 과정을 가시화한다. 엄혜진, 「생존회로」,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141~161쪽; Saskia Sassen,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hrenreich · Hochschild, eds., Metropolitan Books, 2002 참조.

주 여성의 비체화를 재현한다. 또한 이를 통해 환대와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 재사유한다. 특히 탈북여성 서사의 경우, 한반도의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소설이 그려낼 수 있는 장편서사의 새로운 장으로 여겨졌다.

본고는 탈북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이주-장편소설인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여성-이주-장편소설을 둘러싼 한국문학 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이주-장편소설의 플롯에서 여성들은 이주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선택/강요당하거나 이주결혼을 통해 성폭력과 가사노동 등 이중 억압에 시달린다. 이러한 서사구조에서 여성의 고통은 소설의 정동적 힘을 강화하고 독자의 몰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러한 효과는 서사의 결말에서 생존한 여성들을 ‘여신’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본고는 여성-이주-장편소설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플롯의 한계가 등장하는 맥락을 밝히고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는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한국 장편소설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것도 작업이기도 하다.

2. 여성의 ‘부덕’과 아시아적 보편성

황석영은 『심청, 연꽃의 길』(2003)에 이어 『바리데기』에서도 여성 하위주체를 주인공으로 선택한다. 19세기의 심청과 20세기의 바리데기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채택된다. 그에 따르면, 『바리데기』는 “『손님』, 『심청, 연꽃의 길』과 더불어 한국적 형식과 서사에 현재의 세계가 마주친 현실을 담아낸 작업”으로 “전쟁과 갈등의 새 세기에 문화와 종교와 민족과 빈부 차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⁴⁾ 즉 『바리데기』는 그 기획단계에서

4) 최재봉 황석영, 「작가인터뷰: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데기』, 창비, 2007, 293~301쪽. 신형철은 최근 다음과 같이 황석영의 세계문학

부터 ‘세계시민’으로서의 작가의식을 펼친 문화번역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바리데기』는 북한의 청진에서 중국, 영국으로 이동하며, 조선인, 중국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영국인 등 다양한 국가와 인종을, 한국전쟁에서부터 911, 런던 테러에 이르는 현대사를 넘나든다. 그 과정에서 여성주체는 신자유주의의 파국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곱째 딸이었기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야 했고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과 싸워야 했던 바리는, 어릴 적부터 죽은 자를 볼 수 있고 말 못하는 숙이 언니와도 말이 통하고 짐승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영매였다. 북조선의 청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바리의 가족은 결혼을 내고 남선으로 떠난 외삼촌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게 된다. 여기서 바리의 고난이 시작된다. 여성의 이주는 계급과 계층 안정성의 하락을 가져온다. 남성의 이주가 일자리를 찾아 기회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여성의 이주는 성폭력이나 인신매매를 경유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설은 북한, 중국, 영국을 거치면서 가족을 잃은 바리가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여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다. 바리는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계발하여 제국의 중심지인 영국에 정착한다. 작가 황석영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리의 도착지는 영국이어야만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이때 신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국주의적 남성성에 대한 반성 없이 전개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성폭력과 희생자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성을 진단한 바 있다. “황석영은 1970~80년대에 발표한 뛰어난 리얼리즘 소설들로 ‘한국문학사’의 한 챕터를 완성했고, 89년에는 방북(訪北)해 ‘북한문학사’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98년 석방 이후 글쓰기로 복귀한 뒤에는 원숙한 장편소설을 쓰고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해 ‘세계문학사’에 참여하고 있다. 삶과 문학과 공동체, 세 층위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다 보니 남한과 북한과 세계를 다 살아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한 한국 작가는 지금까지도 한 사람뿐이다.” 신형철, 「결국은 모두 만각의 생」, 『중앙일보』, 2016.3.26. <http://news.joins.com/article/19788826>(최종검색: 2016.8.11.)

바리에게 발마사지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족처럼 대해준 상 언니는 바리를 데리고 파렌에서 영국으로 이주한다. 밀항 과정의 성적 위협으로부터 바리를 지켜주는 것도 상 언니이다. 소설은 상 언니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부감으로 그린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킨 바리가 배 안의 풍경을 영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적 처리는 고통을 강조하며 재현해왔던 기존의 리얼리즘적 서사 전개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밀항 과정의 육체적 고통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분리된 영혼의 눈을 통해 묘사된다. 이는 바리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강간과 성매매, 스웨트샵 등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역시 영매인 바리의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 묘사된다. 즉 바리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을 투사하는 매체(media, 영매)인 것이다.

나는 뉘과 몸이 산산이 해체되는 꿈을 꾸 후로 어느 남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일을 상하이 반점의 루 아저씨는 눈치채고 있었을 테지만 통킹의 탄 아저씨나 직원들은 아무도 모를 거였다. 나는 아직도 작은 몸집의 가엾은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식당에 있을 적에 뒤늦은 초경을 치렀고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진작부터 상 언니에게서 이러저러한 충고를 여러번 들었기 때문이고, 이미 나는 오래전에 여자가 되어버렸다고 여기고 있었다.⁵⁾

문제는 이 환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재현이 이주여성 서사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이유이다. 바리는 탈북과 밀항 과정에서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바리가 체험한 폭력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통해 모호하게 재현되며, 직접적인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남자도 무서워하

5)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162~163쪽. 이하 쪽수만 표기.

지 않게 되었다”는 바리의 말은 ‘가엾은 계집아이’라는 바리의 외모와 대조적으로 단단한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미 내면은 어른이 되어 버린 바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 황석영은 이러한 서술이 주체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말한다.⁶⁾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성폭력의 재현과정과 맞물린다. 주인공인 바리는 성폭력의 직접적 묘사 대상이 되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작가가 구성한 ‘일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바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가족질서이다. 바리는 신체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사창가에 넘겨졌어도 부풀지 않은 가슴 때문에 발마사지 가게로 돌려보내진다. 이러한 낭만적 서사는 고통을 전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바리를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려는 서사적 욕망은 바리가 가족 질서 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처참한 상황을 모호하고 환상적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바리의 언니나 상 언니 등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이주 과정에서 강간당하고 사창가로 팔려간다. 중국에서는 발마사지 기술을 바탕으로 돈도 벌고, 가게도 장만하였던 똑똑한 상 언니는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바리의 딸을 죽게 만든 후 자살한다. 그러나 소설은 상 언니의 추락이나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도리어 바리와 대조적으로 의지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평가할 뿐이다.

아시아 러시아 동유럽에서 흘러들어온 인근 업소의 소녀들 얘기. 가족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와 데려가고 나면 반 년도 못되어서 되돌아오는 여자들.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아무하고나 잠자고 돈 받고, 소개업소 조직의

6) 심진경, 「도전 인터뷰 한국문학은 살아있다: 소설가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35(3), 2007, 262쪽. 여기서 황석영은 강간과 같은 폭력적 장면은 예전처럼 ‘실감나게’ 쓰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참혹한 삶을 생명 본래의 넉넉함으로 풀어내고 싶었다는 것이다.

사내를 애인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애기들. 세상 어느 도시에서나 벌어지는 일들.⁷⁾

소설은 사창가의 여성들을 타자화시킨다. 바리는 상 언니와의 재회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선량한 루 아저씨 역시 상언니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설은 이 소녀들이 왜 반년도 못 되어서 다시 사창가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족이 찾아서 데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없이 개인화되었으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어느 도시에서나 벌어지는 일들”로 치부하는 것이다. 반면 이웃에 살던 나이지리아 부부가 처한 곤란은 다각도에서 조명된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나이지리아 부부의 사연은 부부 본인과 할아버지, 바리의 입을 통해서 서술된다. 바리는 이들의 고통에 공명하고 압둘 할아버지 역시 부부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여 사창가로 끌려간 상 언니나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부부의 곤란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민의 곤경을 보여주는 반면, 성매매 여성들의 사연은 그렇지 않다.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이나 주거권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삶은 개인적 비극이기 때문이다. 성매매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개인의 의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설명된다. 이는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치환하여,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바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기 때문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소설은 바리의 새 시작이 가족을 만들어 정착하는 데 있다고 제시한다. 파편화된 세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는 가족인 것이다. 그렇기에 바리는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덕’을 갖추고

7) 황석영, 앞의 책, 255쪽.

있어야만 한다. 바리는 알리와 섹스한 후 “알리나 나는 둘 다 서양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풍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혼인할 남자 외에는 아무나 같이 몸을 섞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네 아내가 되려고 결심했다.”⁸⁾며 결혼을 선언한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를 서양과 대별시키고, 그 속에서 여성의 ‘정조’를 중요한 것으로 명명하는 방식이다. 즉 서양의 제국주의 대 아시아의 ‘부덕’이 대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리의 도덕적 우위는 이러한 ‘부덕’에 기인한다.

급변하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부덕’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여성들에게 요구된다. ‘부덕’이 없이는 제국의 중심에서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상 언니나 사창가의 소녀들이 가족 질서 안으로 포함되거나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리는 ‘부덕’을 갖춘 여성답게 남편의 이슬람 전통에 따른다. 18세에 결혼하고, 19세에 남편이 실종된 바리는 21살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압둘 할아버지와 함께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소설은 혼자 홀리아(자유) 순이라는 딸을 낳아 기르며 라마단을 지키는 ‘얼너 바리’를 통해 ‘부덕’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때 바리의 ‘부덕’이 여성의 성적 통제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울리히 벡은 근대사회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 결속이 단절되고, 개인은 안전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체에게 사랑은 자신을 정박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고정점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별 분업으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남성은 개인적 노동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아내인 여성은 가정의 여러 일을 해결할 남겨진 노동자가 될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돌보며 그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이것이 산업사회를 가능하게 한 토대라는 해석이다.⁹⁾ 근대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성별 분업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

8) 황석영, 앞의 책, 206쪽.

9) 울리히 벡 외,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1999.

로 가능하다. 황석영은 이 낭만적 사랑에 아시아적 가치를 더한다. 바리는 알리와 연애,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 주거권을 획득하고 정착한다. 알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둘의 결혼은 전통 가치가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리는 술과 담배를 즐기며 이슬람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젊은 이주민 세대이다. 그러나 바리와 결혼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훌륭한 무슬림으로 거듭난다. “아이도 기르고 모스크에도 부지런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새 생활”의 시작은 결혼이다. “고향에서는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한집에서 산다며 그래야 혈육간에 정이 유지된다”(160)는 압둘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알리와 바리의 신혼집은 할아버지가 관리하는 아파트이며, 이들은 압둘 할아버지와 “한가족으로 매일 식사를 함께” 한다. 밤에 택시운전을 하러 나가는 알리 대신 바리가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돈독해지는 방식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이처럼 바리는 현모양처의 현현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소설은 바리가 이슬람의 종교 전통과 관습,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서술하지 않는다.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나 혼란은 없다. 바리는 수용할 뿐이다. 이것이 혼종적 21세기를 보여준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바리의 문화는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섹스하지 않는 부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알리는 사실상 결혼 후 부재하기 때문에 바리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다. 사랑과 연애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리와 알리의 사랑은 당위적으로 진행된다. 바리가 왜 알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연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바리이지만, 바리의 개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¹⁰⁾ 바리의 내면은 영매의 목소리로만 재현되고, 현실에서 바리의

10) 김은하는 이에 대해 코엘료 류의 순문학 상업주의를 훑내낸 서사라고 평가한다. 무거운 이야기를 정형화해서 제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욕망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바리는 감정과 내면이 약화된 도구화된 캐릭터로 그려지

감정은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된다. 소설이 힘을 기울이는 것은 세계 체제 이지 바리가 아니다. 바리의 내면은 오히려 개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왜 주인공은 탈북여성인 바리어야만 했는가.

소설은 가장 악한 인간을 백인 남성 제국주의자로, 가장 선한 인간을 아시아 여성으로 재현한다. 세계체제의 질서에 따라서 백인 남성은 가장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식민 지배자인 에밀리 부인의 남편은 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은 그를 살해한다. 백인 남성의 폭력성은 강조되지만, 태국인 여성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태국인 여성은 백인 제국주의자의 폭력에 희생된 작은 아시아를 표상하는 한 장면에서만 등장한다. 이처럼 소설은 세심하게 백인과 유색인을 계급적으로 구분한다. 백인 남성의 폭력성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부터 내연녀에 대한 학대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려진다. 아시아인 남성들은 조력자이자 현인으로 등장한다. 바리를 돕는 ‘아저씨’들은 북한인, 중국인, 홍콩 출신의 이민자 등 다양하다. 특히 파키스탄 출신의 압둘 할아버지는 바리의 할머니와 연결되며, 존경할 만한 연장자이자 가족-종교의 리더로 그려진다. 이는 여성들이 인종, 계급에 관계없이 ‘영매’라는 것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귀족인 에밀리 부인과 줄루족 주술사이자 유모인 베키, 바리는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소통한다. 이들의 인종적, 계급적 격차는 영매 바리를 경유한 영혼의 교류를 통해 해소된다. 에밀리 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광산을 운영하던 식민 지배자의 딸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외로움에 시달린다. 남편이 젊은 태국 여성과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고통 받는 에밀리 부인은 젊은 아시아 여성을 혐오한다. 이는 내연녀가 남편을 살해하면서 증폭된다. 살해당한 남편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에밀리 부인에게 바리는 “자아, 이제 그 끔찍한 사건은 잊어요. 괜찮아요. 살다보면 다 잊

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하, 「탈북 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55, 2010, 364~395쪽.

게 돼요. 미워하지 말아요.”(237)라는 말을 건넨다. 소설은 고통이나 고난이 자연스레 잊을 수 있도록 승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때 승화의 매개가 되는 것은 남편의 혼외자이다. 에밀리 부인은 남편의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수감된 여성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그녀에 대한 미움 역시 극복한다. 남편의 외도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안정되는 백인 귀족 여성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바리이지만 바리가 아니다. 바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기호일 뿐이다. 바리를 통해 입증된 아시아적 가치는 에밀리 부인의 승화를 통해 보편성으로 확장된다. 용서와 해원의 서사는 남편의 아이를 통해서 가능하고,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신성함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 보편성은 이는 바리의 신성함이 결국 어디에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3. 성스러운 모성과 한국문학의 욕망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문단은 장편소설의 재림을 모색해왔다. 이는 단편 위주의 ‘순문학’ 시장이 독자들을 문학 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니, 장편소설을 통해 다시금 문학의 시대를 만들어보자는 소망이기도 했다.¹¹⁾ 신형철은 장편소설의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장편소설의 본질과 역

11) 지난 10년간 베스트셀러를 조사한 교보문고의 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소설 베스트셀러 10권에 이름을 올린 한국작가는 신경숙(『엄마를 부탁해』), 권비영(『덕혜옹주』), 공지영(『도가니』)뿐이다. 20위까지 확장하면 『정글만리』 1권, 『즐거운 나의 집』, 『7년간의 밤』의 3권이 추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 베스트셀러를 담당하고 있는 장편소설의 경우, 한국문학의 약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DB의 최종분석,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2016.3.18.

http://www.kyobobook.co.kr/bestSellerNew/bestseller.laf?range=4&orderClick=Daad&snntn_id=11507(최종검색: 2016.8.11.)

2015년만 보더라도 소설분야의 점유율이 16.4% 감소하였고, 반대로 새로운 서사

할을 “의제를 제기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건-진리-응답”의 3단계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장편소설은 “윤리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²⁾ 장편소설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봉합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파열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장편소설은 언제나 ‘윤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돌과구를 모색하던 한국문학 장에서 등장한 새로운 윤리적 상상력이 이주여성 서사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장편소설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이주-여성-장편 서사의 트라이앵글이다. 『바리데기』와 유사하지만 다른 『리나』를 비롯하여 신경숙이 6년만의 장편소설로 19세기 말 프랑스로 이주한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리진』(문학동네, 2007)을 들고 나왔으며, 김탁환 역시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리심』(민음사, 2006)을 내놓았다. 소재가 겹칠 만큼, 2000년대 중반 한국문단은 이주 여성을 소설화하는 데 몰두하였다. 여성은 외국으로 나가면서 계급이 하락하고, 강간이나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된다. 이러한 여성 주체가 비천함을 극복하고 화해와 승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장편 길이의 서사가 필요해진다. 그리하여 시대와 주제는 다르더라도 이주 여성 서사는 이 구도 안에서 반복재현된다. 이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녀를 선택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폭력적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육체와 성폭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윤리학적 상상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¹³⁾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 이주 성폭력의 제3세

장르라 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이나 장르소설 시장이 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소설 독자의 고령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젊은 층의 소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 독자의 고령화」, 2016.2.24.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11417&expr_sttg_dy=20160224172400(최종검색: 2016.8.11.)

- 12) 신형철, 「윤리학적 상상력으로 쓰고 서사윤리학으로 읽기-장편소설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단상」, 『문학동네』 17권 1호(통권 62호), 2010, 1~11쪽.
- 13) 재현의 윤리와 관련해서는 「귀향」을 둘러싼 논의를 상기할 수 있다. 영화 「귀향」은 357만 명(2016.4.6. 기준)이라는 놀라운 스크어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과 강간의 재현 방식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위안부와 성폭력을

계적 특수성은 세계시장에서 설득력을 발휘한다.

황석영의 『손님』, 『십칭』, 『바리테기』 등 동아시아 3부작 역시 이러한 장편소설의 윤리적 상상력이 발동된 사례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한국설화, 신화 등을 바탕으로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을 극복하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은 아시아적 환상성으로 이어진다. 황석영은 굶과 영매 같은 요소를 소설에 포함시킨다. 『손님』은 지노귀긱의 12마당을 직접 등장시켜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인도한다. 죽은 자와의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유사한 화해가 『바리테기』에서도 계속된다. 『바리테기』에서는 딸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바리의 원한을 해소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제 흘러오는 배는 불도 없고 빛도 없고 입자도 없는지 쥐죽은 듯 미동도 없이 다가온다. 조용한 가운데 속삭이는 듯한 웃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온다. 고향에서 우리 가족을 산산이 흩어놓았던 관리들도 타고 있고, 미어 언니 팔아먹은 놈들, 따렌의 돈놀이꾼들, 밀항선의 뺨단 사내들, 포주 아줌마, 그리고 상이 광대뼈가 불거지도록 삐쩍 마른 얼굴로 뱃전에 상반신을 내밀며 외친다.

여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들이 타구 있다. 우리는 언제 풀려나지?

이번에도 어린 계집아이의 목소리가 절로 나온다.

우리 엄마가 묶여 있어. 엄마가 미움에서 풀려나면 너희두 풀릴 거야.¹⁴⁾

사고로 딸을 잃은 바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며 자신의 ‘적’과 대면한다. 이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관리들, 인신매매단, 포주, 그리고 홀리야를 죽게 한 상 언니까지 바리의 일생이 이 배에 타고

둘러싼 ‘재현의 관습’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희정, 「어떻게 새로운 ‘우리’를 상상할 것인가, 『씨네21』 2016.3.1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3396(최종검색: 2016.8.11.)

14) 황석영, 앞의 책, 284쪽.

있는 것이다. 이때 죽은 딸은 엄마가 미움에서 풀려날 때, 적들 역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적을 용서하고 감싸 안는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자신의 해방을 위해 너의 적을 먼저 해방하라는 딸의 목소리는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그리고 이 화해는 바리가 영매이기에 가능해진다.

해원의 서사에서 귀신이나 영매가 등장하는 것은 황석영 소설만의 특징은 아니다. 억압되었던 목소리를 가시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유령의 목소리는 한국문학의 주요 장치로 기능해왔다. 특히 희생적인 어머니의 유령은 국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출판시장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유령이 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독립된 한 장르로 다룬다.¹⁵⁾ 이 소설은 35개국에 판권이 판매되었고, 미국 출판시장에서 초판 40만 부를 판매하여 문학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⁶⁾ 미국 언론들은 『엄마를 부탁해』를 소개하면서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동아시아적 어머니 상을 떠올린다. 유령이 되어 귀환한 희생적 어머니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의 대조가 전통적 가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¹⁷⁾ 이는 모성의 신성

15) 『엄마를 부탁해』는 2000년대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약 200만 부를 판매하여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최근 10년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은…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연합뉴스』, 2016.3.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1/0200000000AKR20160321088951005.HTML?input=1195m>(최종검색: 2016.8.11.)

16) 신경숙은 『엄마를 부탁해』로 여성 작가이자 한국 작가 최초로 ‘2011 맨 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작가 중 해외 시장 판매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문학 한류’, ‘K문학’ 등 세계문학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 온미 문학 에이전트 지트워」, 『중앙일보』, 2016.6.14. <http://news.joins.com/article/20165630>(최종검색:2016.7.20.); 「세계인 사로잡은 K문학」, 『한국경제』, 2016.3.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184321>(최종검색: 2016.8.11.)

17) 실제로 신경숙의 책을 소개한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리뷰 기사는 이 소설을 동아시아의 어머니와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하며 지구화 시대에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다. Maslin, Janet, “A Mother’s Devotion, a Family’s Tearful Regrets”, *New York Times*, 2011.3.30.

화를 통한 해원의 서사가 세계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임을 입증한다. ‘부덕’을 중심으로 직조된 희생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화해가 동아시아적 특수성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에 대해 고민해온 윤지관은 황석영의 장편 소설을 두고 “우리 서사문학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큰 버팀목이 되어 온 것이 사실”¹⁸⁾이라고 진술한다. 세계문학은 민족문학의 경쟁 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민주의가 민족문학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민족은 여전히 변혁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지관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운 『바리데기』는 민족문학이 배태한 세계문학이 된다.¹⁹⁾ 특히 한국문화/문학의 비서구성은 세계문학이 되기에 더욱 적합하다. 지역성은 오리엔탈리즘을 경유하여 보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관이 미술적 리얼리즘이 가진 오리엔탈리즘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듯, 지역성을 보편성으로 끌어올려 세계문학의 중심에 섰던 것은 중남미의 미술적 사실주의가 먼저였다. 탈식민주의적 문화 지형 안에서 미술적 사실주의는 전통적 리얼리즘이 포착하지 못하는 세계를 그려내며 세계문학계에 등장했다. 서구 중심적 근대성을 비판하며 탈식민주의적 대항담론으로 등장한 미술적 사실주의는 필연적으로 인종적·민족적 정체성, 젠더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²⁰⁾

http://www.nytimes.com/2011/03/31/books/kyung-sook-shins-please-look-after-mom-review.html?_r=0; Iyer, Pico, “Lost in a World Without Roots”, *Wall Street Journal*, 2011.5.28,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3730804576319130980329832> (최종검색: 2016.8.11.); 음영철, 「한국 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 2012, 93~116쪽.

18) 윤지관 임흥배, 「세계문학의 이념은 살아 있다」, 『창작과비평』 35권 4호, 2007, 13~47쪽. 2007년 대담 당시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이었던 윤지관은 고은, 황석영 등이 노벨상 후보로 매년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한국문학의 세계문화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다. 동시에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비서구 문학이 오히려 문학적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 윤지관, 「“경쟁”하는 문학과 세계문학의 이념」, 『안과밖』 29, 2010, 34~55쪽.

20) 우석균, 「미술적 사실주의의 근대성: 문화적 주체성 모색을 통한 탈식민서사의 확

주변부 국가에서 발신한 정체성 이슈는 1세계 수신자들에게 윤리적 서사이자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여겨진다. 1세계 중심의 근대 질서가 파국에 이르렀다는 판단 역시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위시한 비서구적 탈근대성이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이어진다.

황석영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제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탈식민주의와 지역성, 지역연대의 문제를 고민한다. 비서구적인 것, 곳과 영매와 같은 비사실적 요소를 소설에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로 인해 『손님』이나 『바리데기』를 두고 마술적 사실주의와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황석영은 이에 대해 자신의 스타일은 중남미 문학과는 다르다고 대답한다. 중남미 문학에서는 소격 효과처럼 등장하는 민담이나 신화가 자신의 소설에서는 “현실과 타당한 연결”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이다.²¹⁾ 대신 그가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진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서구의 소설적 서술이나 방법론과 다른 ‘자기 스타일’이다. 황석영은 신화적 존재로서의 바리의 영매 되기는 “몸이 사회화되는 것”(254)이라고 답한다. 자기 스타일로서의 ‘시적 서사’는 ‘고통당한 고통의 치유자’로서의 바리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시적 서사’가 차별화되지 못한다. 환상성이 리얼리즘의 거울 상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환상적인 것 자체가 가져오는 소격 효과가 오히려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어 리얼리즘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현실과 타당한 연결”이 서사의 내적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황석영 소설에서도 이 내적 완결성에 대해 재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세계 하위주체들의 연대를 낭만적으로 제시하는 『바리데기』는 발표 당시부터 여러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휴머니즘에 대한 강박²²⁾, 타자들

립], 『라틴아메리카 연구』 14(2), 2001, 59~81쪽.

21) 심진경, 앞의 글, 254쪽.

22) 권유리아, 「바리가 영국으로 간 까닭, ‘우리’에 대한 지극한 강박」, 『내일을 여는 작가』, 2007년 겨울, 247~248쪽.

사이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수렴적 제의²³⁾, 제3세계 민중과의 연대에 기초한 환상적 초월²⁴⁾ 등 소설의 도식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바리테기』의 ‘자기 스타일’이 한국 장편소설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될 만한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권성우는 황석영이 90년대 소설에 대한 대결의식 하에서 『바리테기』를 창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리테기』가 리얼리즘 서사의 확장이자 퇴행이라는 양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리의 영매되기가 작위적인 서사 전개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이때 바리테기 설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외국인들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는 권성우의 가정에는 아시아, 혹은 제3세계에 대한 세계문학적 접근이 탈각되어 있다. 바리테기는 영매되기를 통해서 한국문학의 얼굴이자 세계문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리테기』의 영매 되기는 신자유주의 시대 탈북자 여성이라는 하위주체를 중심으로, 제3세계의 화해와 연대,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건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때 화해와 연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해원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해원을 추동하는 것은 여성을 폭력적인 빈곤으로 내모는 신제국의 질서를 극복하는 가족주의이다. 작가 본인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리는 신제국주의 하에서 소외된 민중의 얼굴이다. 이때 민중의 윤리적 정당성을 대표재현하는 모성이라는 전통적 상징과 결합된다.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의 얼굴이 되기 위해 여성 주체는 어머니이자 영매가 되어 해원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이때 모성의 신성함은 철저히 노동과 분리된 채 가족 영역 안에 머문다.

조예와 비오스의 구분 이래, 여성들의 노동은 조예의 신성함과 연결되었다. 버틀러는 이것이 젠더와 단순노동, 재생산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²⁶⁾ 경제적 조예와 정치적 비오스를 분리하

23) 김형중, 「국경을 넘는 세 척의 배」, 『문학들』 2007 겨울, 61~76쪽.

24) 박성창, 「문학 국경 세계화」, 『글로컬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49~76쪽.

25)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 『한민족문화연구』 24권, 2008, 227~253쪽.

26) 버틀러·스피박, 주혜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여 여성들을 조예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신성함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햇빛은 삶의 신성함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 아래 등장한다. 따라서 신성함으로 무장한 햇빛은 삶이 정치적 권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버틀러의 지적은 타당하다. 바리의 성스러움은 바리의 삶을 가족 안에 안착시킨다. 죽은 딸의 당부처럼, 모든 원한을 풀어내고 비로소 해방된 주체가 된 여신의 성스러움은 남편의 귀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관타나모에서 돌아온 알리는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미국의 신제국주의의 모순을 증언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소설은 국적과 인종이 다른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런던에 정착하여 식당을 연 바리와 알리가 테러를 목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장면으로 택한다. 소설이 마지막까지 사회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족이다. 여성들의 고통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질서를 증언하기 위해 가족 영역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가 된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디아스포라가 된 여성 주체가 갖은 폭력적 질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찾고 가족을 이뤄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 바로 서는 것은 남성이다. 여성은 세계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도구화된 신이 될 뿐이다.

4.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소수자 되기의 서사화는 장편소설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계문학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바리데기』는 폭력을 신성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폭력을 통과제로 만든다. 구타, 성폭력, 인권의 말살 뒤에 여신이 된다는 공식은 세계문학이자 동아시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갖는다. 황석영이 『심청』을 자신의 동아시아 3부작의 완성이라고 칭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²⁷⁾ 2011년 창비의 세계문학 좌담회에서

27) 실제로 황석영의 『심청』은 프랑스에서 1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한국문학으로서는 이례적인 수치이다. 한승동, 『지금 파리에선 한국문화가 대세』, 『한겨레』 2016.3.19.

백지운은 “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모순과 여러 부대현상들이 집약된 문제적 장소로서 동아시아가 부상하면서, ‘동아시아문학’은 필연적으로 세계사적 중대성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진단한다.²⁸⁾ 이러한 진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동아시아 이주 서사의 맥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바야흐로 한국문단에 발생한 ‘동아시아’라는 사건 앞에 주체들의 이주와 타자화라는 진리가 있고, 이때 그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이다.

이주-여성-장편소설의 ‘클리셰’²⁹⁾는 여성의 신성함으로 이어진다. 카트린 클레망은 성스러움에 접근하는 능력은 소수집단이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에게 성스러움은 ‘순간적인 반항’이라고 설명한다.³⁰⁾ 그런데 이때 신성함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다. 영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노동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신관에서부터 마을의 당집에 이르기까지, 영매는 여성 노동의 장이었다. 그러나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이항대립적 구도 속에서 영매 되기의 노동

2010년에는 르몽드가 여름 휴가지에서 읽어야 할 책 1위로 황석영의 『심청』을 꼽았고, 한국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였다.

황석영은 동아시아의 근대를 일컬어 ‘독방에 갇힌 수컷들의 세계’라고 비유했다. 포용하고 희생하는 암컷의 미덕은 사라진 채 먹고 먹히는 살벌한 수컷들의 권력이 횡행했다. 그곳에 버려진 심청은 그 파고에 휩쓸리고 침몰되면서도 여성적 세계를 지켜나가는 등불이 된다. 이를 통해 ‘심청’은 동아시아 근대가 나아갈 방향을 설파한다. 『황석영 새 장편소설 『심청』』, 『경향신문』 2003.11.18. 이러한 작가의 입장 자체가 심청은 ‘휩쓸리고 침몰되어야 하는’ 등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8) 백지운·심진경·이현우·김영희, 『세계문학, 동아시아문학,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39권 1호(통권 151호), 2011, 335~371쪽.

29) 이해령, 『국경과 내면성』, 『문예중앙』 2006 가을호, 233~250쪽. 이해령은 『리나』의 클리셰가 견고한 현실에 기대고 있기에, “클리셰의 진부함은 더 사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나』가 보여주는 국경에 대한 사유가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반복해서 재현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0) 카트린 클레망, 줄리아 크리스테바, 임미경 역,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11~32쪽. 이때 성스러움의 저항성은 성적인 것, 에로티시즘과 연관된다. 정숙한 질서를 깨뜨리는 히스테리아의 교성처럼, 성스러움 속에는 성적 해방이 가져오는 저항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이 탈각된다. 영매 되기가 탈각시킨 여성의 노동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강영숙의 『리나』를 다시 읽을 수 있다. 강영숙의 『리나』 역시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주와 노동, 경계넘기에 관한 서사이다.³¹⁾ 두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탈북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들 여성이 가족과 분리되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리나』는 “회색 빨래가 걸려 있는 탄광촌의 비좁은 집에서 평생 사는 것과 창녀가 되더라도 외국물은 먹어보고 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쁜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성노동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가로지른다. 탈국경 서사의 ‘우회’³²⁾로도 읽히는 『리나』는 가족, 성, 국제적 노동분업 등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가시화한다.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제3세계 노동자 연대의 허무함 등 초국적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리얼리즘적 시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리나』는 승화를 통해 획득되는 성스러움을 일상으로 가져온다. 마을의 유일한 가수이자 예인인 할머니는 노동을 통한 영매 되기를 보여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고 외모는 그로테스크하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 앞에서 “누군가는 향을 피워 가수 앞에 갖다 놓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웃는다. 영매의 노래가 가진 다성성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차원을 재현한다. 언어 없이 의사소통하는 신령함, 이것이 할머니를 통해서 발현된다. 그래서 무대에 선 할머니는 가수이자 영매, 무당이다. 그리고 리나는 그 뒤를 이어 마을의 예인이 된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은 여성들을 위무하기 위한 노래를 계속하고 제의를 수행하는 영매로서 노동한다. 리나는 성스러운 모성으로 거듭나가거나 해원을 통한 화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시아적 미덕을 지닌 바리와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국의 중심에 정착한 바리와 제국에 도착하지

31)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32) 김경수, 「디아스포라, 난민의 상상력」, 『황해문화』 2006 겨울, 301쪽.

못하고 국경을 헤매는 리나의 차이를 만든다.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경계를 넘는 모험을 통해 신성성을 만들어 내는 여성-이주-장편소설은 동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세계문학으로 자리 매김한다. 신제국주의가 위협하는 포스트 식민 국제 질서 하에서 민족문학 세계문학의 길항을 통해 한국 장편소설이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수자 되기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소수자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 폭력의 희생양이 여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스러움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성스러움을 노동과 분리하지 않으며, 디아스포라를 공식화하지 않는 서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2. 단행본

- 버틀러·스피박, 주혜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1~139쪽.
카틀린 클레망, 임미경 역, 줄리아 크리스테바,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1~351쪽.

3. 논문

-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 『한민족문화연구』 24권, 2008, 227~253쪽.
권유리아, 「바리가 영국으로 간 까닭, ‘우리’에 대한 지극한 강박」, 『내일을 여는 작가』, 2007년 겨울, 247~248쪽.

- 김경수, 「디아스포라, 난민의 상상력」, 『황해문화』 2006 겨울, 301쪽.
- 김은하, 「탈북 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55, 2010, 364~395쪽.
- 김현균,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 정체성의 모색」, 『스페인어문학』 73호, 2014, 263~285쪽.
- 김형중, 「국경을 넘는 세 척의 배」, 『문학들』 2007 겨울, 61~76쪽.
- 박성창, 「문학 국경 세계화」,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49~76쪽.
- 백지운·심진경·이현우·김영희, 「세계문학, 동아시아문학, 한국문학」, 『창작과비평』 39(1), 2011, 335~371쪽.
- 신형철, 「윤리학적 상상력으로 쓰고 서사윤리학으로 읽기-장편소설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단상」, 『문학동네』 17권 1호(통권 62호), 2010, 1~11쪽.
- 심진경, 「도전 인터뷰 한국문학은 살아있다: 소설가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35(3), 2007, 239~278쪽.
- 엄혜진, 「생존회로」,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141~161쪽.
- 우석균, 「마술적 사실주의의 근대성: 문화적 주체성 모색을 통한 탈식민서사의 확립」, 『라틴아메리카 연구』 14(2), 2001, 59~81쪽.
- 윤지관 임홍배, 「세계문학의 이념은 살아 있다」, 『창작과비평』 35권 4호, 2007, 13~47쪽.
- 윤지관, 「‘경쟁’하는 문학과 세계문학의 이념」, 『안과밖』 29, 2010, 34~55쪽.
- 음영철, 「한국 소설의 한류 가능성 모색: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 2012, 93~116쪽.
-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2권 4호, 2006, 125~155쪽.
- 이혜령, 「국경과 내면성」, 『문예중앙』 2006 가을호, 233~250쪽.
- 최재봉 황석영, 「작가인터뷰: 분쟁과 대립을 넘어 21세기의 생명수를 찾아서」, 『바리데기』, 창비, 2007, 293~301쪽.
-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2006 겨울호, 418~434쪽.

4. 신문 잡지

손희정, 「어떻게 새로운 ‘우리’를 상상할 것인가», 『씨네21』 2016.3.16.

「서울 온 미 문학 에이전트 지트워», 『중앙일보』, 2016.6.14.

「세계인 사로잡은 K문학」, 『한국경제』, 2016.3.11.

「황석영 새 장편소설 심청」, 『경향신문』 2003.11.18.

「최근 10년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은…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연합뉴스』,
2016.3.21.

Iyer, Pico, “Lost in a World Without Roots”, *Wall Street Journal*,
2011.5.28.

Maslin, Janet, “A Mother’s Devotion, a Family’s Tearful Regrets”, *New York Times*, 2011.3.30.

Abstract

Post World Literature and the Ethics of Female-Diaspora-Novel

- On Hwang's *Princess Bari*

Heo, Yoon

This article explores the place of Korean female diaspora novel as a new prospect and verifies the ability of female narrativ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In Korean female diaspora novels, the female protagonists become 'abject' in the process of travel, migration, and settlement. The sacred 'abject' plot makes Korean novel a part of World Literature.

Hwang's *Princess Bari* uses a Mythical narrative *Baridegi* as a motif and plot. Bari, a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migrated from east to west through China. Sexual violence, trafficking, sex-work are the main threat to Bari. But Bari was saved thanks to kind male helpers. The novel focus on the violence of neo-liberalism. For that, female characters are raped, bitten, and finally killed herself. The positive main role, Bari, become a wise wife, sacred mother in Muslim emigrant society in London. Her gift is a part of tools that could show her dignity, virtue that is related to a holy family. In this novel, east and middle Asia have the same virtue, especially on sexuality and marriage, that is different from the West. Asian people could easily unite because of that difference. This politics of identity makes 3rd world more ethical.

Korean female diaspora novel is the new perspective of Korean literature as Post World literature. Sub-emperialistic desire could

easily support the idea. East Asian specialty is the very possible way to enter world literature market. This Politics of place make minority narrative invisible.

Key words : Korean Female Diaspora, World Literature, East Asia, *Princess Bari*, Sex/Work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